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현대 중동 역사의 흐름

The Flow of Contemporary Middle Eastern History
in Biblical Worldview Perspective

Mark R. Kreitzer (Kosin univ.)
번역 발렌티어 : 김성범



시편 2편에는 세상의 군왕들과 민족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속했음에도, 여호와와 “맨 것과 결박”을 끊고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를 보면 구원이란 단순히 개개인이 구원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지파와 민족과 언어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원하신다고 전한다. 또 예수님이 시편 2편에서 말하는 기름부음 받은 자이시며 그가 세우신 나라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설명한다(사 9:6).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차고 흘러넘치는 성령의 축복이 중동의 모든 민족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전한다.¹⁾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민족들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에게 복종하는 날을 기대했다.²⁾

The Bible’s grand story states that although the kings and peoples of the earth belong to Him, they are trying to throw off what they consider as the “chains and shackles” of Jehovah and their service to “His Messiah” (Ps 2). The Bible’s story also teaches that salvation is more than just saving mere individuals. Instead, it teaches us that although all clans, peoples, and languages which He created are in rebellion, He still wants their salvation.¹⁾ The Bible’s story also explains that Jesus is the Anointed Son of Psalm 2 and that the growth of His kingdom will have no end (Is 9:6). Paul writes that only through trust in Christ will the Holy Spirit and His blessing of justification flow to all the peoples in the Middle East (Gal 3:1-16). The OT Prophets looked forward to the day that all the kings and peoples of earth would submit to their rightful Jewish Lord.²⁾

1) He created them: Gen 10-11; Ps 86:9; He wants their salvation: Gen 12:3, 49:10; Ps 22:26-29, 67: 96; Dan 7: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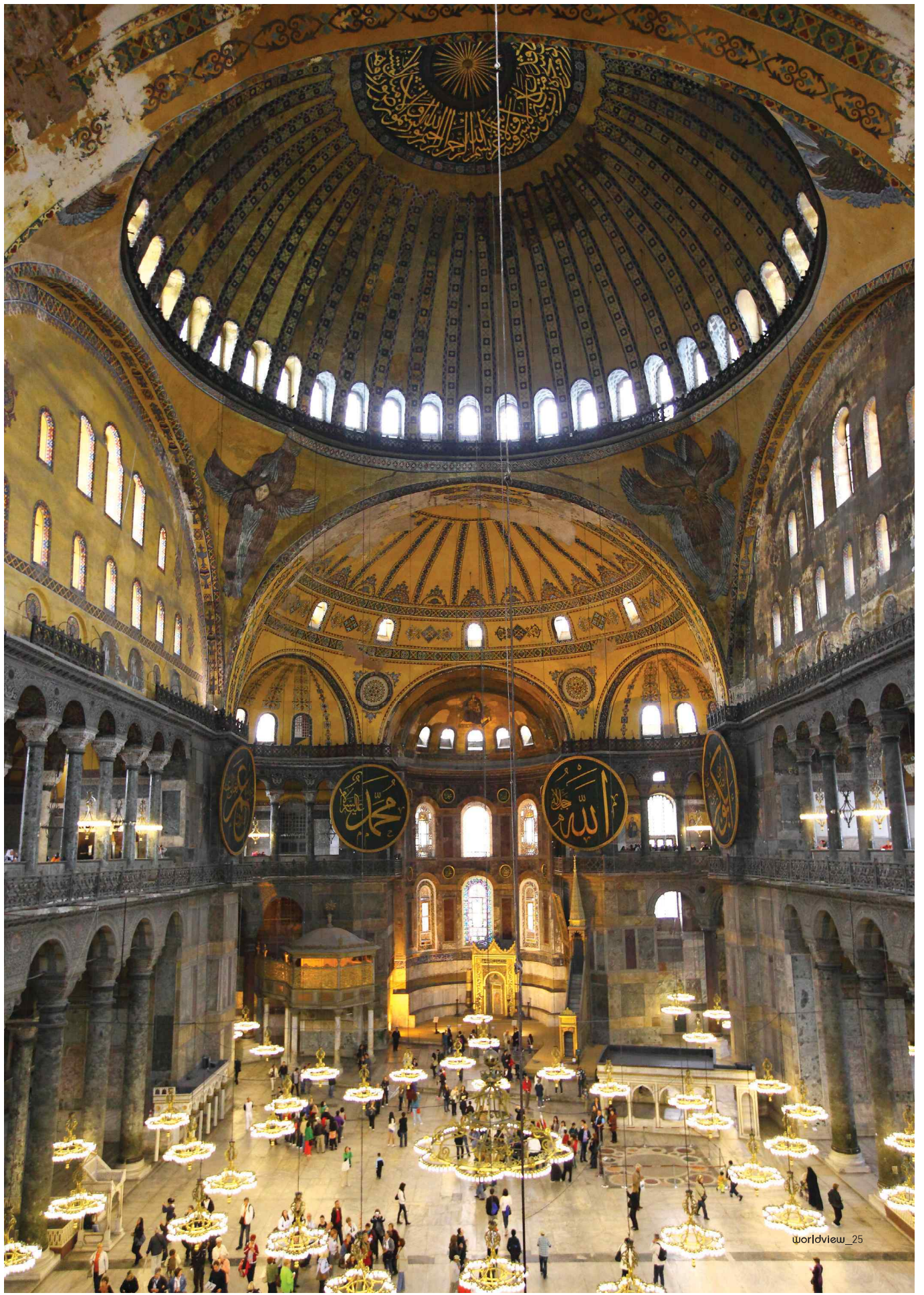
2) E.g., Is 2, 19, 64; Mic 4; Pss 22, 47, 67, 72, 86, 96, and 110.

우리는 이것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요 4:22)”는 말씀을 뜻함을 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이름 그대로(마 1:28)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께서서는 그 구원의 과정 중에 가나안, 앗수르, 애굽,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다(사 19:22-25).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여호와와 종인 야곱의 지파들만 구원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기 때문에 이방의 빛이 되어 구원을 땅끝 모든 민족들에게 이르게 한다고 하였다(사 49:4-6; 행 13:46-48). 창조의 꽃이 만개하였을 때 문화 명령의 목적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다(사 11:9; 함 2:14).

이것은 하나님께서 중동의 유대 이스라엘인들과 아랍 이스라엘인들을 함께, 팔레스타인의 이슬람교도들과 가톨릭교도들을 함께, 이스라엘의 드루즈파 신도들과 팔레스타인의 수니파와 시아파를 함께 제자로 삼기 원하신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야 하며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이다(딤후 2:1-8). 우리 주님께서서는 이란의 페르시아어로 말하는 이들과 북아프리카의 수많은 베르베르족들과 이집트의 이슬람교도들과 콥트교도들, 시리아의 기독교도들, 시리아의 수니파와 시아파 모두를 열렬히 사랑하고 계신다. 그분의 계획에는 이란의 바하이교도들과 조로아스터교도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아랍어와 투르크어를 쓰는 민족들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오직 유대 민족에게만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물론 과거 유대 족속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지만, 복음으로 인해 그들은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롬 11:28).

We would agree that this means that “salvation is from the Jews” (Jn 4:22). Jesus came to save His own people from their sins – that is what His name means (Mt 1:28). Yet in the process He will engraft all the other peoples into that redemptive community as well. This will include the Palestinians, the Syrians, Egyptians, and Persians (Is 19:22-25). It was too small a thing, Isaiah wrote, for the Servant of Yahweh to save merely the sons of Jacob, but He must also bring light to all the peoples to the ends of the earth (Is 49:4-6; Acts 13:46-48). The goal of the cultural mandate, when the full bloom of the original bud of the creation blossoms, has always been that the whole earth would be “filled with the glory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Is 11:9; Hab 2:14).

In the Middle East, this means that our Lord wants us to disciple both the Jewish and Arab Israeli’s, both Palestinian Muslims and Catholics, both Israeli Druze and Palestinian Sunnis and Shias. Our concern should lead to prayer “for all mankind . . . because He is the only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1 Tim 2:1-8). Our Lord is passionate for Farsi speakers of Iran, for the many Berber groups of North Africa, for both Egyptian Muslims and Copts, the Syrian Christians, and Syrian Sunnis and Shiites. His plan includes Iranian Bahai and Zoroastrians, and all the other many various Arab and Turkish speaking people groups surrounding Palestine and Israel. So, He is not just interested in His ancient people, as many Christian Zionist seem to teach. Certainly they are still beloved because of the promises to the fathers, yet they are now enemies because of the Gospel (Rom 11:28).





제자로 삼는다는 것에는 당연히 중동의 민족들에게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전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정의와 정직과 진리를 가르치는데 적합하다(딤후 3:16). 칼뱅이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명령에는 우리가 새로운 형태로 언약을 이행할 수 있게 해주는 보편적으로 유효한 가치가 있다. 이는 구약성서의 “이방인 법”을 아랍인과 이스라엘인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법적 기준이 두 가지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랍인들의 천부(天賦)인권을 침해하거나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복음주의적인 편애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공정한 정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예시로 신 1:17, 10:17; 롬 2:11 참고 바람). 좋은 예로 십계명을 살펴보면, 십계명은 모든 인간에게 다섯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책임을 부여한다. 자유, 생명, 가족, 재산, 그리고 공정한 정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세상의 모든 공정한 사회의 기반이 된다. 개혁적 기독교는 중동에 온전한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To disciple certainly also includes teaching all Middle Eastern peoples the whole counsel of Scripture. All of Scripture is suitable for teaching justice, righteousness, and truth (2 Tim 3:16). As Calvin taught, this means that the universally valid equity in every teaching and every command of God is valid for us to apply in a new covenant, fulfillment form.³⁾ This means that the “stranger laws” of the OT directly apply to Arab-Israeli relationships. There must be no double legal standards.⁴⁾ Consequently, when the Israeli’s violate the God-given, rights of the Arabs or if the Palestinians violate those same inalienable rights, there should be no Evangelical favoritism. Impartial justice flows out the just nature of God (see e.g., Dt 1:17, 10:17; Rom 2:11).⁵⁾ For example, the Decalogue gives all humanity five inalienabl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Liberty, Life, Family, Property, and Impartial Justice. These are foundations for any just society.⁷⁾ Reformational Christianity has sound wisdom for the Middle East.⁸⁾

3) The Westminster Confession speaks about “general equity” of the “judicial laws” (WCF 19:4).

4) See e.g., Lev 24:16; Num 9:14, 15:29-30; Rom 2:3-12.

5) See also, 2 Chr 19:7; Ps 82:2; Prv 18:5, 24:23, 28:21; Mal 2:9; Acts 10:34; Rom 2:11; Gal 2:6; Eph 6:9; Col 3:25.

6) Liberty under God in whom we trust, life from conception to natural death, heterosexual based family life, private property, and impartial justice in regular courts of law in which perjury and breaking of oaths/contracts are criminal.

7) See, Landa Cope,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Template*, also books by W. Kaiser, and C. Wright.

8) See, *RES Testimony on Human Rights*, edited by Gordon Spykman.



이사야와 하박국 선지자(합 2:7-10)는 완고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앗수르 왕의 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신바 ‘충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하셨더라.” (사 10:12-14) 현대의 제국주의는 과거의 악랄한 강탈 행위와는 확연히 다르지만 그 오만한 정신과 결과는 같다. 미국과 영국(프랑스, 러시아, 이란 혹은 터키가 될 수도 있다)에겐 대체 어떤 천부적인 권리가 있기에 중동을 여러 세력으로 나누고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는가?

성경적인 지혜는 “민주주의의 전파”나 “경제적 회복”같은 이타적 이유들을 가장하여 제국주의적 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도 초기엔 오사마 빈 라덴과 사담 후세인을 도왔다가 결국 그들을 숙청하려 하지 않았던가. 성경적인 관점에 의하면 이러한 간섭주의적 계획들이 표방하는 명분이 이슬람 세계에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복음주의자들은 그것을 옹호하거나 지지해선 안된다. 그렇다고 지하드주의자들의 제국주의적 성향을 순진하게 받아들여서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서방세계의 제국주의적 개입이 오히려 그런 움직임들을 더욱 촉진시킨 것은 확실하다고 본다.

자유, 생명, 가족, 재산,
그리고 공정한 정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세상의 모든 공정한 사회의
기반이 된다. 개혁적 기독교는 중동에
온전한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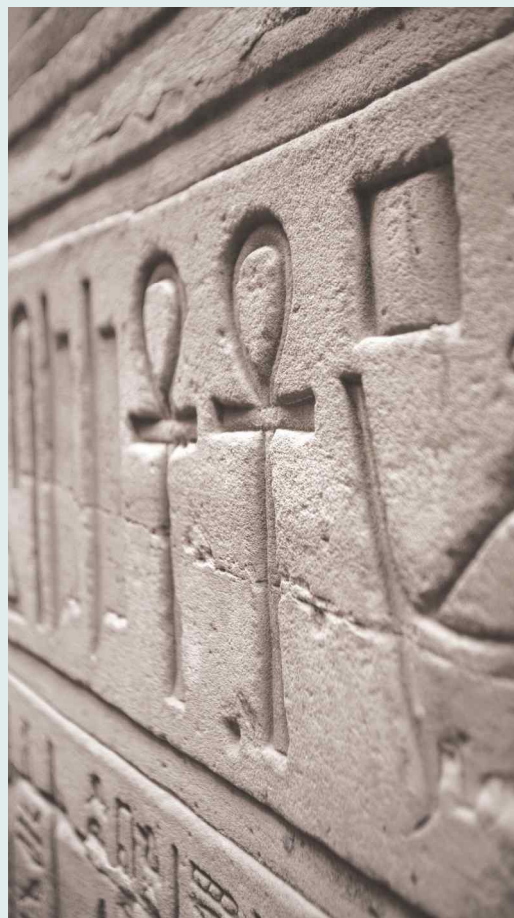
Liberty, Life, Family, Property,
and Impartial Justice.
These are foundations for any just society.
Reformational Christianity has sound
wisdom for the Middle East.

Isaiah and Habbakuk (2:7-10) are adamant: “[The LORD says,] ‘I will punish the fruit of the arrogant heart of the king of Assyria...’ For [he] has said... ‘I removed the boundaries of the peoples And plundered their treasures.’” (Is 10:12-14). Certainly, modern imperialism is not the brutal rapine of old, yet the arrogant spirit and fruit are the same. For example, what God-given right do the US and Britain (or for that matter France, Russia, Iran, or Turkey) have to carve up the Middle East into spheres of influence and to overthrow governments?

Biblical wisdom strongly rejects any imperial activity even under the altruistic disguise of “spreading democracy” and “economic uplift.” After all, the UK and USA first helped Osama bin Laden and Saddam Hussein, then sought to destroy them. According to a biblical perspective, evangelicals shouldn’t support these interventionist initiatives even if the alleged motivation was to bring democracy and to the Muslim world. Though I do not believe we should in any way be naïve to the equally imperialist visions of the jihadists, yet it seems certain that the West’s imperialist interventions actually feed these movements.

In biblical perspective, the fall of Adam and present re-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아담의 타락과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야말로 현재 중동의 핵심적인 문제들이다.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와 그리스도의 “결박”에 저항하고 있는데 (시 2), 이것이야말로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억압의 원인이다. 이러한 저항은 제국주의와 간섭주의에서 발생하는 난폭한 역류를 낳고 만다. 결코 민주주의의 부재나 경제적 자유, 혹은 여성에 대한 억압이나 교육의 부족이 그 원인이 아니다. 누구든 이방인들이 칼을 들이대며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강요한다면 그들은 분개하며 때론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다. “평화 중재자들에게 축복 있으라”는 말은 개인뿐 아니라 정부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다(시 120:7 참고바람). 우리 중 누구도 결코 회교 율법을 무력적으로 우리에게 강요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보편적인 규범이 될 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만이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시 33:22)



bellion against God are the core problems in the Middle East. All peoples are revolting against the “fettters” of the LORD and His Christ (Ps 2). That is the source of oppression in the Middle East. That revolt leads to both imperialism and the violent blowback from that interventionism. It is not the lack of democracy or economic freedom, or the lack of education or oppression of women that causes them. Any people would resent outsiders –often violently –when they impose an alien way of life by the swor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applies

as much to governors as to individuals (see Ps 120:7). None of us would want the Muslim’s Shariah law imposed upon us with the power of the sword. “Love you neighbor as yourself” thus is a universal norm. Only the comprehensive application of the redemption of the LORD and His Anointed will deliver us. He alone is our “Law-giver, Judge, and King. He will save us” (Is 33:22).



Mark R. Kreitzer Mark Kreitzer was raised in Southern California where he attended Biola University (BA, MDiv). He has served as a missionary in Austria, South Africa, and now South Korea. He has had recent mission trips to North Korea and also to the Ukraine, where he taught at a Presbyterian seminary in Kiev. Mark and his wife Nancy met at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where he earned the DMiss and PhD degrees and she an MA. Both teach at Kosin University in Busan. Nancy teaches English and Mark is professor of Missions and Systematic Theology while serving also as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MDiv (English) program.